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여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 조풍류 고수의 판소리 한마당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6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 백화점-포스트 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 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
(옛 수도극장, 스키라극장)-종로 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문학의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블카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퓨전 국악창작그룹 블랙싸인 국악공연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 초등학교-낙산 공원-예술가의 집-한무숙 문학관

13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학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백사실 계곡-*김명남 명창과 조풍류 고수의 우리가락 여흥공연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관

코스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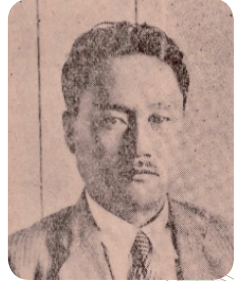
① 청운문학도서관 ④ 현진건 집터

② 시인의 언덕

⑤ 백사실 계곡

③ 무계원

*김명남 명창과 조풍류
고수의 우리가락 여흥공연
(16시~16시30분)



▶ 일 정 표

회 차	일 정	주 제	코 스	해 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익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잠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동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차가집 터-원삼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버우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옛 수도 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등학교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불가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예술가의 집-한무숙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도-청진동-관훈동-윤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연보 및 작가 소개

연보

－ 생애를 중심으로

▶ 1900년 9월 2일

본관은 연주(漣州), 호는 빙허(憑虛). 8월 9일 경상북도 대구 출생. 가계는 한말에 득세한 개화파 집안으로서, 대구 우체국장을 지낸 현경운의 4남.

▶ 1906년

마을에서 한학을 배움.

▶ 1908년

대구노동학교 입학하여 신학문 익힘.

▶ 1910년

어머니 이정효 별세.

▶ 191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경성중학교 입학.

▶ 1915년

경주 향리 부호의 딸인 이순득과 결혼.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후 이듬해 자퇴.

▶ 1916년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 입학.

▶ 1917년

귀국 후, 대구에서 백기만, 이상화 등과 습작 동인지 〈거화〉를 발간.

▶ 1917년 4월

도쿄의 5년제 세이조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

▶ 1918년 3월

귀국 후 집안 몰래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호강대학 독일어학과에 입학하였으나 중퇴 후 귀국.

▶ 1919년

한말 주일공사관 참사관을 지낸 당숙 현보운에게 양자로 입적되어 서울로 상경. 친형들과 6촌 형제가 됨. 현보훈 사망하고 그가 호주가 됨.

▶ 1920년

개벽에 〈회생화〉를 발표하면서 문필활동 시작. 〈빈처〉를 발표하면서 문명을 얻음.

12월 첫 딸 경숙을 얻었으나 이듬해 죽고 만다.

11월 조선일보사에 입사

▶ 1921년

〈개벽〉에 단편소설 〈빈처〉 발표.

〈개벽〉11월에 자서전적 소설인 〈술 권하는 사회〉 발표.

홍사용, 이상화, 나도향, 박종화 등과 함께 〈백조〉창간동인으로 참가.

▶ 1922년

최남선이 만든 동명사에 입사.

▶ 1923년

〈개벽〉에 〈지새는 안개〉를 발표.

〈백조〉에 〈할머니의 죽음〉발표.

▶ 1924년

〈개벽〉에 〈운수 좋은 날〉 발표.

〈불〉에서 미숙한 성의식과 노역으로 고통 받는 농촌여성을 그려냄.



▶ 1925년

〈시대일보〉가 폐간되자 동아일보사로 옮김.

〈B사감과 러브레터〉를 조선문단에 발표.

〈타락자〉에서 여러 가지 좌절의 경험하는 지식 청년의 고민을 생생히 전달.

▶ 1926년

〈개벽〉에 〈사립정신병원장〉.

단편집〈조선의 얼굴〉.

▶ 1928년

동아일보 입사 3년 만에 사회부장이 됨.

▶ 1929년

1월 상하이에서 활약하던 공산주의자인 셋째 형 정건의 체포와 죽음으로 깊은 충격.

동아일보에 〈고도순례 경주〉 연재.

▶ 1933년

셋째형 정건이 3년의 옥살이 후유증으로 출소 6개월 만에 사망.

▶ 1934년

형수 윤덕경(현정건의 아내) 역시 41일 만에 음독자결.

▶ 1936년

동아일보 사회부장 역임당시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한 이른바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되어 1년간 옥살이.

▶ 1937년

동아일보를 사직하고 창작에만 전념.

▶ 1937년

부암동에서 양계 시작

▶ 1938년

역사소설 〈무영탑〉 동아일보에 164회 연재.

▶ 1939년

동아일보 학예부장으로 복직.

동아일보에 〈흑치상지〉를 연재하던 중 총독부의 검열과 탄압으로 강제 중단.

▶ 1940년

명동의 증권회사에서 미두를 투자했다가 사업 실패

▶ 1942년

양계장과 집을 팔고 제기동 이사.

술에 빠져 살게 되고 결국 혈압으로 늙게 됨.

▶ 1943년

4월 25일 지병인 장결핵과 폐결핵으로 제기동 자택에서 사망.

▶ 2005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에 추서됨.

▶ 2009년

‘현진건 문학상’ 제정.

— 작품을 중심으로

▶ 빈처(1921)

▶ 술 권하는 사회(1921) : 〈빈처〉와 〈술 권하는 사회〉는 표제작이 되는 〈타락자〉와 함께 1922년 단편집으로 출간.

▶ 운수 좋은 날(1924)

▶ 할머니의 죽음, B사감과 러브레터, 불(1925)



- ▶ 조선의 얼굴(1926) : 〈운수 좋은 날〉, 〈할머니의 죽음〉, 〈B사감과 러브레터〉, 〈불〉 등을 포함하여 〈우편국에서〉, 〈까막잡기〉, 〈그리운 흘린눈〉, 〈발〉, 〈새 빨간 웃음〉, 〈사립정신병원장〉, 〈고향〉 등 11편의 단편이 1926년 〈조선의 얼굴〉이라는 단편집으로 묶어 출간.
- ▶ 고향(1926)
- ▶ 불국사 기행(1929)
- ▶ 무영탑(1938) 단행본 출간
- ▶ 적도(1939)
- ▶ 흑치상지(1939, 미완성).

작가 소개



1900년 대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대구 우체국장 현경운(玄景運)이며 어머니는 완산이씨(完山李氏) 정효(貞孝)이다. 본관은 연주(延州)이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1908년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의 나이 10세에 어머니가 별세하였다.

1915년 당시 경주 향리의 부호인 진사 이길우의 딸 이순득과 결혼, 처가에서 신혼생활을 하였다. 11월 보성고보에 입학하였다가 이듬해 자퇴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하다가 잠깐 귀국해 집에 있던 중 1918년에는 둘째형 정건이 있는 중국으로 몰래 건너가 독일을 공부하였다.

1919년 한말 주일공사관 참서관을 지낸 당숙 현보운에게 양자로 입적되어 친형들과 6촌 형제가 된다. 서울로 상경해 지금의 종로구 관훈동 52번지에서 살았는데, 현보운은 1919년에 사망하고 그가 호주가 되었다. 12월에 첫째 딸 경숙(慶淑)이 태어났으나 이듬해에 죽고 만다. 둘째 애경역시 어린 나이에 죽고, 셋째 딸 화수(和壽) 하나만 두었다.

양아버지의 동생 현보은의 소개로 1920년 『개벽』 지(誌)에 단편소설 〈희생화〉로 문필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현진건은 『개벽』에 번역소설 『행복』(아르치바세프 원작)과 『석죽화』(쿠르트 뮐체르 원작)를 발표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자호인 ‘빙허’를 쓰기 시작했다. 다소 허무주의적 표현이 없지 않지만 ‘허공(虛空)에 의지한다’는 이 말이 자신의 심경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었고, 고대 중국 송(宋)의 문인 소식의 〈적벽부〉의 구절 가운데 “넓기도 하구나,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서(浩浩乎! 憑虛御風而)...”란

구절에서 느낀 바가 있어 그대로 ‘빙허’를 자신의 아호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921년 〈빈처〉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 같은 해 『조선일보』에 입사하였다. 이듬해 사회의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상을 잘 보여준 〈술 권하는 사회〉로 문단의 호평을 받았다. 홍사용, 이상화, 나도향, 박종화 등과 『백조白潮』 창간동인으로 참여하여 1920년대 신문학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1922년에는 최남선이 설립한 자연과학분야 대학교재 전문출판사인 동명사 입사하였으나, 1924년 『시대일보』를 창간하는 과정에서 장기침체로 이어지자 『동아일보사』로 옮겼으며 〈운수좋은 날〉과 〈불〉을 발표한다. 1925년 〈B사감과 러브레터〉를 발표하고 1928년 동아일보 입사 3년만에 사회부장이 되었고 부암동으로 이사하였다.

사회부장 시절의 현진건은 기사의 제목을 붙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선후배를 막론하고 그의 솜씨를 칭찬했다. 그러나 1929년 1월, 상하이에서 한인청년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형 현정건이 체포되어 본국으로 이송되어 복역하였다. 형의 체포소식은 각별한 형재애를 보였던 현진건에게는 충격이었다. 이 해 현진건은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라의 고도인 경주를 답사하고 그 기행문을 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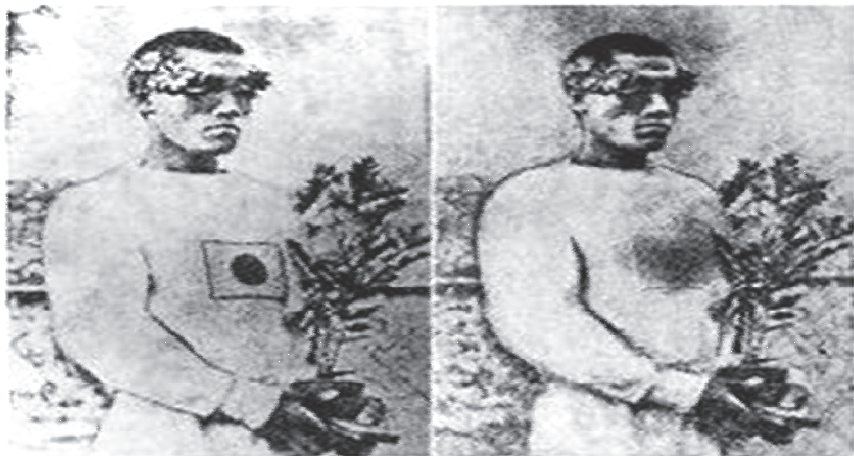
〈백조 창간호와 제2호〉

두주불사의 주당으로 통하던 그가 한번은 취재를 나갔다가 고주망태가 되어 비틀거리며 신문사 복도를 걷던 중 당시 동아일보 사장과 마주쳤다. 품행을 지적한 사장에게 그는 '사장이라면 직원들에게 술도 한잔 사야지'라며 오히려 사장에게 훈계를 하고 급기야 사장의 뺨까지 때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복도로 달려 나온 동료들에 의해 겨우 진정이 됐지만, 사장은 몹시 화가 나 인력거를 불러 현진건을 집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다음날 아침, 말쑥한 차림의 현진건이 평소대로 출근한 모습에 동료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했다.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면 빨리 사장실에 들어가 비는 게 좋을 거라는 충고에도 그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탄정을 부리며 큰 소리쳤는데 이를 보고 사장이 "자네 그 기백 한 번 쓸만 하네. 동아일보 사회부가 왜 그렇게 당당한가 했더니만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랬구먼? 날더러 술 한 잔 안 산다고 화를 냈지? 오늘 퇴근할 때 좀 만나자고. 술이라면 나도 사양하지 않는 사람이지. 한 잔 받아줄게 함께 하자고?" 깔깔 웃었다. 그제서야 현진건은 진심으로 잘못 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그날 저녁 사장의 술을 얻어 마시고 또한번 인력거를 타고 집에 갔다.

이무영은 '인촌과 빙허 현진건'('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1985년, 184~187쪽)에서 당시 사장이 인촌 김성수라고 기술해 놓았으나 우승규 전 편집국장은 1982년 9월 30일 인터뷰에서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있던 현진건이 하루는 술에 취해서 대낮에 사장실 옆 복도에서 송진우 사장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 고하가 허~ 웃으면서 '이사람 취했구먼, 허가 만발이나 빠질 친구야. 백주 대낮에 술을 먹고 사장 뺨을 치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고서는 인력거를 태워 집으로 보냈다고 한다. 다음 날 현진건은 기고만장해서 회사로 출근했는데 송 사장은 그러한 기백을 좋아했다고 한다. 어쨌던 동아일보에서 '현진건에게 뺨 맞은 사장'이 있었던 건 사실인 모양이다.

4년 3개월 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정건이 옥살이의 후유증으로 12월 10일 숨을 거두자, 형수 또한 41일 만에 음독자살해 개인적인 비극이 계속되었다. 이 같은 가족사는 그의 작품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1930년대의 암울한 시대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외면적인 통속성이 강화되고, 민족정신은 내재화 또는 추상화의 경향으로 흘렀다.





〈일장기 말소 전과 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일본 대표로 출전해 1등을 차지한 조선인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워버린 채 신문에 실은 사건으로 현진건은 기소되어 1년간 복역해야 했다. 1년 뒤 출옥하면서 1938년 7월 20일부터 다시 「동아일보」 지면에 장편역사소설 「무영탑」을 연재했다. 1939년 7월에 「동아일보」 학예부장으로 복직,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동아일보」에 역사소설 「흑치상지(黑齒常之)」 연재를 시작했으나 총독 부의 검열과 탄압으로 불과 58회 만에 강제 중단되고, 그의 책 〈조선의 얼굴〉까지 금서로 지정되어 판매가 금지되었다.

동아일보사를 사직하고 부암동 325-2로 이사한 뒤 양계사업을 시작한다. 술을 좋아하던 그는 술로써 세상에 대한 불평을 달랬다. 그와 자주 어울렸던 문인들에는 염상섭, 박종화 등이 있고 이들 말고도 부암동 시절 자하문 안과 박을 넘나들며 술친구하던 이들로는 홍명희, 박찬희, 유지영, 정담채, 우승규 등이 있었다. 자하문 안팎에 살면서 오가는 길에 이들이 현진건의 부암동 집에 들르면 현진건의 아내는 달걀요리와 병든 닭을 잡아 안주삼아 밥과 술상을 내놓았다. 울적한 현진건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 닭머리수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한다.



〈현진건과 아내 이순득, 외동딸 현화수〉

생계가 막막했던 그는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현물 없이 약속만으로 미곡을 사고파는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면서 양계장이나 다른 재산, 부암동에 있던 집도 처분하게 된다. 결국 신설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의 조그만 초가집(제기동 137번지 61호)으로 이사를 하고 현진건은 더욱 술에 빠져 살게 된다. 결국 혈압 때문에 쓰러져 눕게 되었다. 이 해에 현진건의 단편소설과 역사소설 「무영탑」이 박문서관에서 「현진건 단편집」과 「무영탑」으로 발간되었다. 현진건은 『동아일보』 기자였던 양재하가 만든 친일잡지인 『춘추』 4월호에 소설 「선화공주」를 연재하지만 9월호에서 중단하였다.

현진건은 근대문학 초기 단편소설의 양식을 개척하고 사실주의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소설가였다. 특히 식민지시대의 현실대응 문제를 단편기교와 더불어 탁월하게 양식화한 작가로서 문학사적 위치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사실주의 계열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전적 신변소설, 하층민과 민족적 현실에 눈을 돌린 소설, 1930년대의 장편소설과 역사소설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궁핍한 생활과 속에서도 친일 문학에 가담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1943년에 지병이었던 폐결핵으로 제기동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장편·단편 20여 편과 7편의 번역소설, 그리고 여러 편의 수필과 비평문 등을 남겼다. 2005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작품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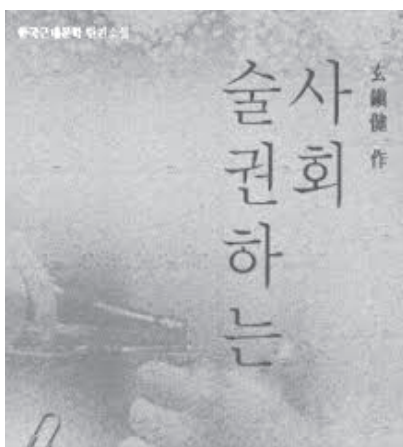
초기소설의 작품경향

그가 작품활동을 시작했던 1920년대 초는 서구의 문예 사조가 적극적으로 유입됨으로써 본원적 의미의 근대소설이 출발하던 시기였다. 특히,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 활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척 하면서 그들의 식민 정책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소위 위장문화정책의 시기에 처해있었다. 지식인들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했다.

현진건은 유년에는 한학을 공부하고 청년기에는 일본과 중국유학을 통해 서구 문화를 수용한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신문화의 접점에 선 지식인이었다. 1920년대 전반기의 식민지 조선의 현실, 근대 사회에 대한 기대와 이를 허용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다. 사회현실을 계급 의식적인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려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작품이 많은데,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전적 신변소설을 주로 썼다.

흔히 현진건을 비롯한 나도향, 박종화 등이 ‘백조파’라고 불리우며 서구의 낭만주의에 자주 비교되곤 했는데, 낭만주의라는 이름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 국한된 일이고 소설 분야에 있어서는 병적이고 퇴폐적인 면이 강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자연주의적인 성격에 가까웠다. 이는 3.1운동이 실패한 뒤 허탈한 느낌에서 문학을 시작한 청년 작가들의 정신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애수, 비탄, 자포자기, 죽음 동경, 정신적 자폐증 등 감상적 경향을 제대로 시로써 승화하지 못한 채 걱정적이거나 애상적인 어투로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작품으로는 1921. 1 〈빈처〉, 1921. 11 〈술 권하는 사회〉, 1922. 1~4 〈타락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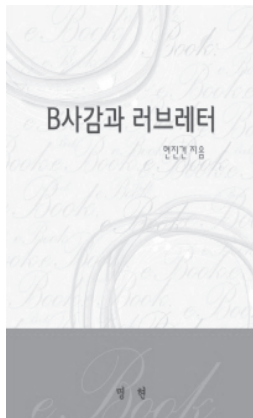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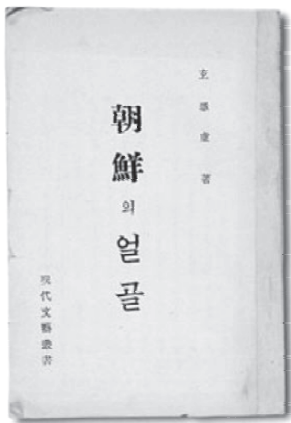
중기소설의 작품경향

시대정신과 사회구조에 대한 통찰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중기소설에서는 식민지의 비참하고 궁핍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실주의 소설이 등장한다. 황폐한 시대상황을 다원적으로 탐구해 가부장적이며 봉건적 성의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회의 허위성과 인간의 본질을 통찰한 작품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가난에 대한 상황적 인식을 토대로 인간간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역학관계를 중요시 했다.

또한 치밀한 구성과 반적의 기법은 특히 장편보다는 단편에서 그 빛을 발해, 한국 단편문학의 백미 중 하나로 손꼽힌다. 김동인, 염상섭과 더불어 근대 사실주의 단편문학을 확립한 선구적 작가로 평가할 만하다.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를 이해하고 체험한 작가이다 보니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식민지 근대의 허구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했다. 또한 예술가 정신을 좀먹는 물질사회에 대한 비판의 글은 민중들의 궁핍한 삶을 초래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관심을 넓혀갔다.

〈운수좋은 날〉은 현진건 소설세계에서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획기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시대에 '신경향파'문학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후에 계급문학을 주도

하게 되는 박영희, 김기진, 이상화 등이 〈백조〉동인을 만들어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초기 〈백조〉의 동인들은 낭만적이고 퇴폐적인 소설을 담고 있었는데, 현진건은 항상 사실 주의적인 관점에서 당대의 아픈 현실을 그리는데 주력했다.



중기작품으로는 1924. 〈운수좋은 날〉, 1924 〈새빨간 웃음〉, 1924 〈까막잡기〉, 1925 〈할머니의 죽음〉, 1925 〈불〉, 1925 〈B사감과 러브레터〉, 1926 〈고향〉, 1926 〈조선의 얼굴〉, 1929 〈정조와 약가〉, 1929 〈웃는 포사〉 등이 있다.

후기소설의 작품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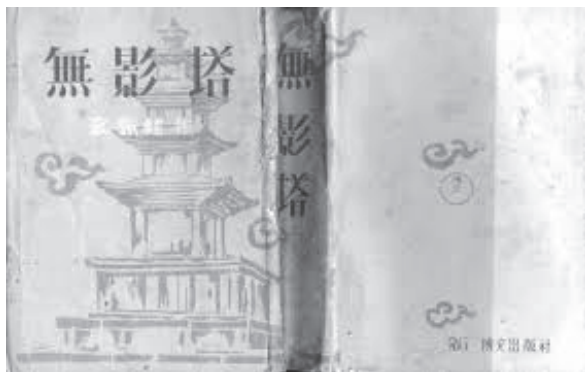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자본주의적 근대를 넘어서는 전망을 상실하고 현실을 살아 나가는 주체의 위치마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려는 작품을 많이 썼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져 현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작가들은 역사적 사실을 빌려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에 몰두했고, 그 결과 역사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현재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에 대하소설이 등장하게 된다. 1939년 10월 25일부터 1940년 1월 16일까지 백제부흥운

동을 그린 <흑치상지>를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중 52회 만에 강제로 중단되었다. <웃는 포사>, <선화공주>와 더불어 현진건의 미완성 역사소설이다. 1920년대의 단편소설에서 보여주던 작가의 창작경향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족의 저항'이라는 주제의식이 매우 두드러진 작품이다.



〈동아일보에 연재했다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중단된 흑치상지는 멸망한 백제 부흥운동을 그린 역사소설이다.〉

후기작품으로는 1933. <적도>, 1938.7.20.~1939.2.7. 164회 <무영탑>, 1939년 10월 25일~1940년 1월 16일까지 <흑치상지>가 있다.



▶ 작품 즐거리



〈안재훈 감독의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애니메이션 영화. 2014년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문학 세 작품을 유니버스형식으로 엮어 발표하였다.〉

동소문 안에 사는 김침지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근근이 살아가는 인력거꾼이다. 한 달 전부터 아내는 기침을 했지만 끼니도 못 때우니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터였다. 그러다 열흘 전 좁쌀 한 되를 들여다 주자 아내는 허겁지겁 밥을 지어서 먹다가 결국 체하고 만다. 이 일로 병은 더 위중해진다. 사흘 전부터는 설렁탕 한 그릇이 먹고 싶다고 졸랐지만 돈 구경을 한지가 한참이다.

아침에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라’고 붙잡았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이었지만 김첨지는 그럴 수 없었다. 집을 나오며 앞집 마나님을 전차역까지 데려다 드렸고 정류장에서는 불쌍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교원인 듯싶은 양복장이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서는 30전과 50전을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김첨지는 몹시 기뻐다. 술도 한잔 사 마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앉아누워 있는 아내에게 설령탕 한 그릇을 사다 줄 정도는 되는 돈이었으니까.

아내에게 핀잔을 준 미안한 마음에 설령탕을 사서 집에 갈 참이었다. 그러나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서 시작된 그의 행운은 계속 이어진다. 혹시나 하며 과하게 부른 차비에도 남대문 정거장까지 학생을 태우게 되면서 그는 평생 보지도 못할 것 같은 1원 50전이라는 큰돈을 쥐게 된다. 그러나 그에 비례되는 불길함에 그는 빗속에서 달리고 또 달렸다. 학생을 내려주고 돌아 나오는 길에 커다란 짐을 가진 손님을 한 사람을 60전에 더 태우게 되자 훌쩍 저녁시간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때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친구인 치삼이를 만난다. 두둑해진 주머니를 자랑하며 김첨지는 치삼이를 끌고 들어가 술을 넉 잔이나 마셨다. 이상하게 계속되던 행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김첨지는 친구를 두고 돈을 내던지며 술주정을 부린다.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을 하며 울기까지 한다. 놀란 친구가 김첨지를 호통치며 집으로 돌려보내고 김첨지의 손에는 설령탕이 들려있다. 평소와 같은 집이지만 아내의 기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방문을 열어보니 천정을 향해 희번덕 뜬 눈으로 축 늘어진 아내 곁에 세 살배기 아들이 뻥뻥대며 울고 있다. 아내가 죽은걸 확인하고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이라며 절규한다.



▶ 작품해설



1920년대 하층 노동자의 삶을 인력거꾼의 어느 하루의 시간으로 압축하여 보여 주고 있다. 시간의 순서에 따른 구성이 아니라, 김 첨지의 불안한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회상 장면을 중간에 삽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적 흐름에 변화를 주어 작품 전체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긴장감을 통해 당시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비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표현상으로는 하층민의 속되고 거친 말투를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거칠고 투박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사실적 문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문체는 작품의 내용, 인물의 성격, 시대 배경 및 주제 의식과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어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침하게 흐른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열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라고 묘사하는 이 소설의 서두에 보이는 ‘비’는 소설의 내용과 주제를 암시하는 자연적

배경이다. 비가 내리는 음산한 분위기는 앞으로 김첨지가 겪게 될 불행을 암시한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김첨지는 보기 드물게 많은 수입을 올리는 행운을 누리지만 결국 아내의 죽음으로 이어져 그의 불행은 한층 비극적으로 보인다.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리로 나설 때부터 이미 김 첨지는 아내가 어찌면 오늘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갖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꼬리에 꼬리를 맞물고 덩비는” 행운 덕분에 김첨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높은 수입을 올리게 되고 그에 비례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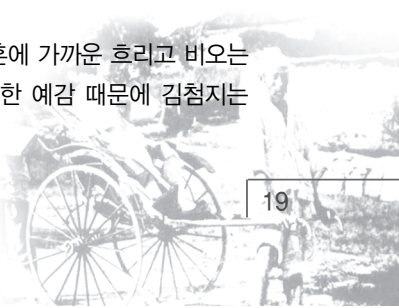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자”는 학생을 태울 때 잠시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김첨지는 외면한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인력거를 끌고 간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수입을 보장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내가 있는 집과는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첨지는 불안해진다. 거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김첨지의 의식은 아내가 있는 집과 그가 있는 현재의 거리를 수시로 왕복하고 있다.

정거장에 도착해서 받은 1원 50전의 삶은 김첨지에게 평생 갖지 못할 돈처럼 여겨져 기쁨을 주지만 또다시 집에 있는 아내에 대한 근심으로 이어져 김첨지는 그 돈을 “귀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절히 느끼”게 된다. 끈질기게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아내에 대한 염려에서 오는 ‘피로’와 계속되는 수입에 대한 ‘광명’은 그의 인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매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초해 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인제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등걸이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해 꾸짖으며 질팡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금전적 수입에 따라 인력거를 끄는 동안 김첨지는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나 인력거가 가벼워지면 그때마다 불길한 예감이 떠올라서 김첨지는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다. 김첨지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김 첨지의 눈에 비친 “어두침침하게 황혼에 가까운 흐리고 비오는 하늘”풍경은 불길한 예감을 고조시키는 구실을 한다. 이 불길한 예감 때문에 김첨지는



일을 마친 후에도 선뜻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는 선술집에 들어선다. 그러나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술에 취한 채 보여주는 난폭한 행위는 그의 불안이 극에 달해있음을 알게 해 준다. 김침지는 친구 치삼이에게 아내가 죽었다며 소리내 울기도 하고 “생때같이 살아만 있다”며 어린애처럼 손뼉을 치며 웃기도 한다.

사실은 이 소설에서 술집 장면설정은 결말의 아이러니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기능적 요소이기도 하다. 독자로 하여금 김침지 아내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 장면은 김침지라는 당대 하층민의 삶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 침지는 취중에도 설령탕을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죽어있고, 어린애만이 빈 젖을 빨고 있을 뿐이다.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자, 김침지의 불행이 극에 달해 있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김침지가 하루 종일 느끼던 불안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김침지의 비극적 삶을 극명하게 드러내 있기도 하다.

〈운수 좋은 날〉은 사건 전후의 명암, 또는 행과 불행의 상황 대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아이러니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제목 자체가 반어적이다. ‘운수좋은 날’이 사실은 김침 지에게 가장 ‘운수나쁜 날’이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이처럼 당대의 모순된 삶의 현실을 반어적 수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는, 그래서 단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외에 생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식민지 치하의 극빈자에게 행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루 종일 추적추적 내린 '비'도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삶도 살아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작가는 지독한 '역설'과 '아이러니'를 통해 알려준다.

이 소설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체의 측면이다. 김침지의 독백이나 대화에서 하층민의 어투나 욕설 등을 생생하게 살려 냄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비어에 가까운 대화나 푸념도 노동 계층의 생활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내는 효과를 지닌다.

등장인물

▶ 김침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인력거꾼으로 하층민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다. 비록 거칠고 상스러우면서 몰인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내를 걱정하는, 선량하고 인정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아내

김 침지의 아내. 조밥을 먹고 체한 뒤 병세가 더욱 심해졌다. 설령탕을 먹어 보는 것이 소원이다. 설령탕을 먹을 수 있는 날에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인물로 작품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인물이다. 개똥이가 죽은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장면에서는 가난의 참상이 드러난다.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인식하고 일을 나가는 김 침지를 만류한다.

▶ 치삼이

김침지의 친구. 김침지의 독백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인물이다. 치삼이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일시적으로 한탄하고 치삼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준다.



작품의 구성

▶ 발단

인력거꾼 김 침지는 오랜만에 믿어지지 않은 행운을 만나 신이 나 있음.
병든 아내에게 설령탕을 사 먹일 생각에 기분이 매우 좋아짐.

▶ 전개

행운이 계속되나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귀가를 서두름.

▶ 위기

선술집에서 친구 치삼이와 술을 마심. 아내에 대한 불안감으로 횡설수설함.

▶ 절정

설령탕을 사 들고 들어온 김침지는 불길한 침묵에 맞서 고함을 침.

▶ 결말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통곡

사건 전개와 갈등 구조

작품 속의 시간은 김 침지가 인력거를 끌고 나선 아침부터 집에 돌아오는 저녁까지의 시간이다. 거듭되는 행운으로 그 시간 동안 김 침지의 행운(돈벌이로 인한 기쁨)과 불행(집에 두고 온 아내에 대한 불안감)의 반복이 교묘하게 엮여져 있다.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게 소설속의 김침지는 ‘집’을 내면적 불안의 공간으로 느낀다. 집에서 멀어질수록 다리가 빨라지고, 인력거가 무거워질수록 몸이 가벼워진다고 묘사한 부분에서 김 침지는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드러난다. 이러한 김 침지의 불안한 심리

상태는 특정한 인물과의 대립적 갈등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생기는 내적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표현상 특징

▶ 반어적 표현

반어, 즉 아이러니(irony)는 겉과 실상이 반대되어 표현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병든 아내에게 설렁탕 하나 사 주지 못하는 극빈민층에 닥친 불행을 '운수 좋은 날'이라는 반어적 제목으로 표현했다. 제목이 주는 비극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작은 것(얼마의 돈)을 얻었으나 중요한 것(아내의 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운수 좋은 날'이라는 표현은 비극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표면적 의미	제목	현실
다른 날과 다르게 돈을 많이 번 날	운수좋은 날	병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 인물 제시 방법

서술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물이 제시되어 있으나 대화 속에서 인물의 특성이나 면모를 알 수 있는 간접적 제시 방법도 함께 쓰이고 있다. 특히 대화의 내용, 즉 김 첨지의 욕설이나 속어 등은 사회 빈민층의 심리를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

▶ 복선의 사용

작품 전반에 걸쳐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일 나가기를 만류하는 아내의 모습 등은 다가올 비극적 결말을 암시 하는 복선 구실을 한다.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가가 인물의 내면에 개입하여 그 심리까지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관찰자 시점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김점지의 행동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작가는 객관적 태도를 보이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작가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

현진건이 활동하던 시대는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이자 일제 강점기였다. 일제는 1919년 3·1만세 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다. 중일전쟁(1937) 이후 조선총독부는 문인들에게 그들이 허락한 내용을 다루면 ‘국민문학’, 그렇지 않으면 ‘비국민’이라고 규정하고 문학의 내용까지 검열하면서 깊이 개입했다. 일제의 뜻에 따른 창작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저항이라고 할 만큼 일제의 간섭이 심했다.

일반적으로 친일 문학이란 이 시기에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이바지한 문학을 말하는 것으로 친일 문학은 1930년대 말, 조선총독부에서 어용문학 단체를 결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단체는 일제의 정책을 홍보하고, 우리 민족을 선동하는 도구로 문학을 이용했고 이를 위해 문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키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으며 문학 작품을 철저하게 검열하여 항일 정신이나 민족의 정신을 담은 작품은 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문인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조하여 그들의 정책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문학 활동하기도 했으며 다른 일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제에 저항하는 항일 문인들도 있었다. 간접적으로 일제의 행태를 비판한 문인, 친일 문학을 하지 않기 위해 절필을 하거나 망명을 한 문인 등도 생겨났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문학 활동이 어려운 시기였다.

그는 식민 지배아래 핍박받는 우리 민족의 수난상과 사회 하층민의 빈곤의 참상을 폭로하고 고발했다. 현진건은 일제에 대한 끈질긴 저항과 강렬한 민족의식을 담은 작품을 표현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모순에 비판적인 의식을 유지했다.

당시에 소설들은 우리 사회의 비참한 모습들을 설명하는 묘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운수좋은 날〉에서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을 담은

한 줄의 해석 없이 상황만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새로운 시도였다. 사건의 구도 역시 제목에서부터 반전을 담고 있어 당시로서는 여러모로 신선한 접근이었다. 〈빈처〉, 〈술 권하는 사회〉에서는 생활과 사회의식의 충돌로 좌절하는 지식인의 삶을 그려냈다. 또한 〈불〉, 〈할머니의 죽음〉 등에서는 전통의식으로 빚어지는 갈등상황을 희화화했다.

3.1운동 후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분리해서 조정한다'는 정책을 취했다. 이렇다보니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사상단체와 사회운동단체가 생겨났다. 1910년대 중반에 등장한 단편소설들은 식민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그로 인한 고뇌를 비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단편소설을 쓴 작가는 근대교육을 받은 신지식인 청년들이다. 강제 병합 직후인 1910년대의 불합리한 식민지 현실과 그 속에서의 당대 지식인들의 무기력하고 고뇌에 찬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식민지 현실의 여러 모순들을 고발,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20년대 사실주의 단편소설의 출현을 예고하는 싹이 되었다. 1920년대의 이념갈등을 작가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는데, 현진건을 비롯한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나도향 등의 작가들이 민족주의나 점진적 개량주의에 정신의 뿌리를 두었다.

1920년대 초에는 〈창조〉, 〈백조〉, 〈폐허〉 등의 잡지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던 예술가 소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자신의 궁극한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소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도향의 〈십칠원오십전〉〈개벽〉 1923.1), 최서해의 〈팔개월〉〈동광〉 1926.9), 현진건의 〈빈처〉〈개벽〉 1921. 1) 등이 주목할 만하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가 한국 근대문학의 발전에서 독립된 한 시기로 묶일 수 있다. 이 시기에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등장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탐구해 들어가는 리얼리즘과 근대 문명 전반에 대하여 문학적 형식의 실험을 통해 비판적으로 성찰한 모더니즘은 우리 근대문학을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리얼리즘이 실제적, 구체적 문제 중심으로 현상을 인식하기 쉽도록 보여주었다면 모더니즘은 개인화된 내면의 시각을 통해 현실을 비틀어 근대 문명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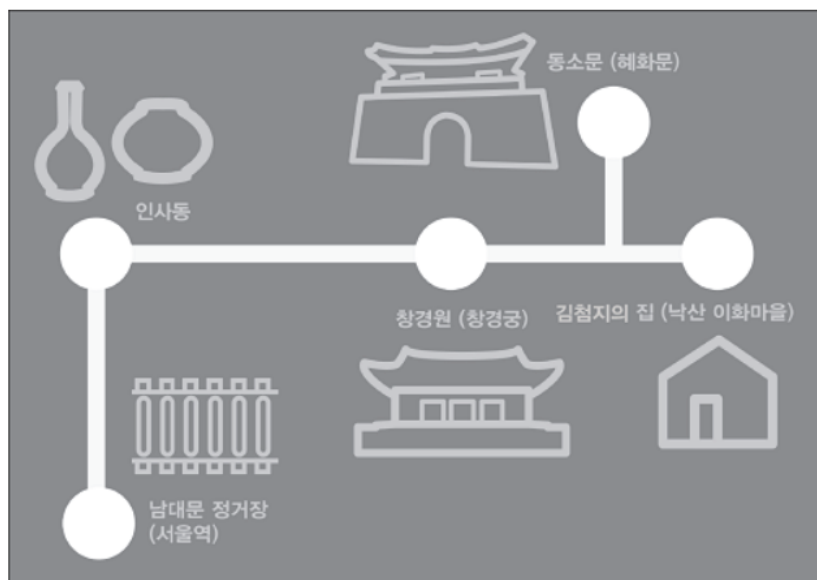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은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 리얼리즘 계열의 대표적 소설이다. 식민지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과 노동자, 농민의 궁핍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치밀하게 묘사했다. 또한 적절한 시점의 사용과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주제를 더욱 인상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근대 다년소설의 양식을 개척하였다. 개화기 소설이 부족하나마 ‘시대’를 찾았다면, 1920년대의 한국소설은 ‘사회’를 알게 되었고 이 연장선에서 1930년대는 역사를 똑바로 파악하려는 역사소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장편 <적도>를 쓴 이후 5년간 침묵을 지켰던 현진건은 <무명탑>(동아일보) 1938. 7. 20~1939. 2. 7), <흑치상지>(동아일보), 1939. 10. 25~12. 28), <선화공주>(춘추), 1941. 4~6)등의 역사소설을 발표함으로써 평소 민족정체성 회복 의지를 돈우고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인의 몰락과정을 드러내 작가의식을 재확인 시켰다. 그의 역사소설 중 유일한 완성작인 <무명탑>은 세뇌적 번뇌를 예술의 정신을 통해 승화시킨 아사달을 내세워 민족정기의 뿌리를 드러내 보인 작품이다. 전설을 소재로 해서도 훌륭한 역사소설이 나올 수 있다는 귀중한 전례를 남겼다. 백제의 유민 흑치상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시 독자들에게 실지 회복의 의지를 일깨운 <흑치상지>는 이러한 작가적 의도가 불온사상 단속망에 포착됨으로써 중단되고 말았다.

▶ 작품 속 서울

김첨지의 하루 동선 따라가기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성곽을 쌓아 여덟 곳에 사대문과 사소문을 두었다. 그 중 동소문은 동북쪽에 있는 소문이라고 하여 동소문이라는 별칭으로 불렸고, 정식 명칭은 혜화문이었다. 한말까지 그 위엄을 자랑하던 혜화문은 당시 일본의 토목기술로 성문은 충분히 보존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다’며 일제는 전차 궤도 확장을 위해 흔적도 없이 허물어 버린다. 1992년 서울시에 의해 다시 복원되지만 아쉽게도 원래의 위치와 모양이 조금 달라졌다. <운수좋은 날>의 주인공인 김첨지는 동소문안에서 인력거를 끄는 빈민층으로 아침에 문안에 들어간다는 마나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리게 된다. 당시 동소문에서 가장 가까운 전차선로는 동대문 부근이었다.



〈위 동소문 터 표석, 아래 동대문〉

김침지가 두 번째로 손님을 태우고 도착한 곳은 동광학교다. 지금의 혜화동 서울과학교 (명륜1가 1) 언저리가 당시의 동광학교가 있던 자리다.

여기서 다시 남대문 정거장으로 내달린다.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과한 요금을 불렀는데도 학생이 선뜻 '그러자'며 수금하자 두말없이 김침지는 달린다. 졸부라도 된양 어깨가 움쭉맸다는 김침지는 아들 뺄되는 어린 손님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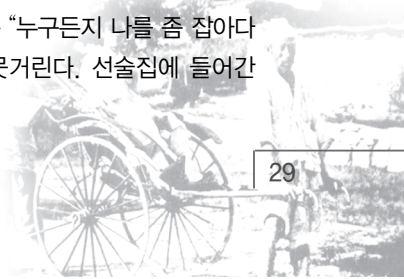
당시에는 버스뿐 아니라 기차가 서는 곳도 정류장이라고 불렀는데, 1900년대에 세어진 남대문 정거장은 그 당시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기차에서 타고 내리는 손님들을 태우려는 일력거들이 즐비하게 서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1925년 경성역이 세워져 1947년 서울역으로 이름을 바뀌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심하게 파손되기도 했으나 역사로 오래 사용되다가 복원을 거쳐 2011년에는 '문화역 서울284'로 개관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역의 전신인 남대문역〉

김침지가 네 번째로 들른 곳은 큰 가방을 들고 탄 이를 내려준 인사동이고 그 다음은 창경원이다. 예나 지금이나 봄비는 사람들과 상인들로 번잡한 인사동에서 60전을 쟁긴 김침지는 창경원 앞을 지나다 길가 선술집에서 친구 치삼을 만났다.

소설을 읽다보면 선술집은 '집에서 벗어나고픈 욕망'과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을 가진 김침지의 심리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공간이다. 하루 종일 눈에 밟혔을 아내의 안녕이 궁금했다면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야 옳았지만 김침지는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 고, 구해라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면을 두리번두리번 머뭇거린다. 선술집에 들어간



후에는 자학적으로 술을 과하게 마시는데 기어이 일 원어치나 술을 먹으며, “이 원수엿 돈! 이 육시를 할 돈!”이라 외치며 그 어렵게 번 돈을 내던지기도 한다. 이것은 잠시 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불행과 맞닥뜨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죽어가는 아내를 외면하고 돈을 버는데 신이 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렸던 자신을 꾸짖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제에 의해 몰락해가는 조선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창경궁이 김침지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에 김침지는 두려웠을 것이다. 조선의 궁궐로서 위엄을 떨치던 창경원이 유원지의 모습으로 전락한 창경원으로 변한 데에는 당시 조선인의 비참한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

인력거와 설렁탕

인력거는 김침지를 설렁탕은 김침지의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소설 속 두 장치이다. 매일같이 인력거를 끌면서도 정작 김침지 본인은 인력거를 탈 일이 없고, 그렇게 원하던 설렁탕을 먹게 되었음에도 죽음으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김침지의 아내는 소설속에서는 서로 닿지 않는 부분이지만 소설을 다 읽고 책을 덮을 즈음에는 어딘지 모르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력거란 자전거 바퀴처럼 생긴 두 개의 차륜 위에 사람이 앉을 자리를 만들고 포장을 씌운 것이다. 인력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94년(고종 31)으로 일본인 하나야마(花山帳場)가 10대를 수입, 서울 시내 및 서울과 인천간 운행한 것이 시초이다.

초기의 인력거는 차 위에 고정시킨 네 귀의 기둥에 장막을 쳐서 지붕을 삼은 간단한 구조였으나 뒤에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여름철 등에는 벽과 지붕을 뒤로 젖히고 운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바퀴도 처음에는 철테 바퀴를 그대로 써서 몹시 흔들렸으나, 뒤에 통고무 바퀴가 등장하였고, 압축공기를 이용한 타이어가 나온 것은 191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또 초기의 인력거꾼은 일본인이었으나 뒤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뀌었다. 인력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평양·대구 등 지방도시에까지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초기에는 관리·중산층·노약자·기생 등이 가마를 대신하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초기의 승객은 일본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다. 특히 기생들은 요긴한 교통 수단으로 애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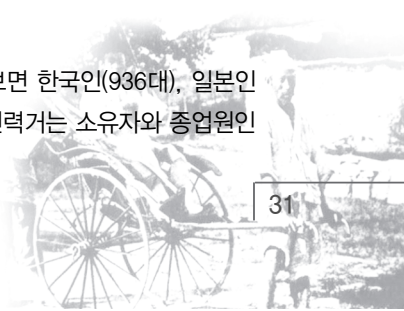
인력거꾼은 요즈음의 택시운전사나 우체부처럼 지리에 밝았기 때문에 초행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었다.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나 언덕에서도 운행이 가능하여 중산층의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굳혀갔다.



1930년대에는 신문사에도 자가용 인력거를 두고 기자들이 이용할 때마다 전표를 떼어 주었다.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인력거를 뒤에서 미는 사람을 따로 붙였는데 이를 '두패 지른대'고 일렀다. 인력거꾼은 뽕박질을 잘해서 서울 장충단에서 벌어진 '대운동회'에 참가, 장거리 경주에서 일등을 하는 일이 많았다.

1911년 말 전국의 인력거는 1,217대(당시 자동차는 2대, 객마차는 110대였다.)였으나 1923년에는 4,647대로 늘어났으며, 서울에서는 약 37%인 1,816대가 운행되었다. 인력거를 이용할 사람은 오늘날의 콜택시처럼 인력거조합에 전화를 걸어서 불렀으며, 부유층에서는 자가용을 따로 마련하였다.

1924년 당시 자가용 인력거는 1,509대인데 소유자를 살펴보면 한국인(936대), 일본인(482대), 프랑스인(77대), 기타 외국인순이었다. 한편 영업용 인력거는 소유자와 종업원인



인력거꾼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운행하였다. 1908년 인력거의 영업허가, 인력거꾼의 자질, 운임, 속도, 정원, 두 대가 마주쳤을 때 길을 비키는 법 등을 정한 인력거영업단속규칙이 공포되었다.

1914년부터는 인력거의 운행감독을 각 경찰서에서 맡게 되어 일정한 날짜에 차체수리 상태 및 인력거꾼의 복장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인력거꾼의 복장은 업종의 성질상 개선되기 어려웠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복장단정을 운위할 형편이 못 되었고, 심지어 더위와 땀 때문에 맨발로 달리는 사람도 많았다.

인력거는 1912년부터 등장한 임대승용차(택시)에 밀려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승객 확보를 위하여 1922년 11월 10리에 80전이던 값을 60전으로, 하루 전세료도 5원에서 4원으로 낮추었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1931년 당시 자동차는 4,331대로 증가한 반면 인력거는 2,631대로 줄어들었다. 인력거꾼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고 수입도 지나치게 영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거 부조합(人力車夫組合)도 결성되었으나, 근무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또 인력거꾼과 승객 사이의 요금시비도 끊이지 않아 한때는 인력거승차표를 발매한 일도 있다. 서울의 경우 인력거는 광복 무렵부터 자취를 감추었으나 일부지방 도시에서는 6·25전쟁 이후까지 운행되었다.

설령탕은 당시 서민, 양반 할 것 없이 즐겨 먹던 음식이었지만, 김치처럼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조차도 큰 맘 먹고 사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다. 1990년대부터 TV에 수사물이 많아지면서 설령탕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유치장, 취조실’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것.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끌려온 범죄자들이 배달 온 설령탕을 허겁지겁 먹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많은 반찬이 필요 없이 간단히 먹어치울 수 있는 설령탕은 자장면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메뉴다.

설령탕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그중 가장 지배적인 것이 '선농단 설'이다. 삼국 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사의 신인 '신농씨'를 중국에서 모셔와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가 이뤄지는 것을 '선농단'이라 했다. '선농단'은 지금의 제기동에 있다고 하는데, 농사가 시작되는 봄이 되면 임금이 직접 이곳으로 행차하여 쌀과 소, 돼지를 제물로 놓고 제사를 지냈다. 모든 의식이 끝난 뒤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제물로 쓰인 소를 이용해 국을 끓여 나눠주었는데, 이것이 '선농탕', '설농탕', 등으로 불리다 지금의 '설령탕'이 되었다는 것이 '선농단 설'이다. 국물이 눈처럼 희다고 하여 '설롱탕'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선농단 설'에 따르면 설령탕은 서울에서 기인한, 서울의 전통 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설령탕이 몽골의 음식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설령탕의 기원에 대한 두 번째 의견이다. 1920년까지만 해도 서울에 25곳 정도이던 설령탕집은 (1920년 10월 8일 자 매일신보) 4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100곳(1924년 6월 28일 자 동아일보)에 이르게 된다. 당시 서울의 청계천 변과 종로에는 설령탕 집이 뻗뻗이 들어서 있다고 기록되는데, 매일신보는 이를 보고 '설령탕이 조선음식계의 패왕'이라고 보도했다.

일제강점기 때 설령탕집이 급증하게 된 것은 일본군의 고기 섭취량을 충당하기 위해 조선으로 소고기가 대량 유입됐기 때문이다. 일본군들은 주로 살코기를 먹었고, 조선인들은 소머리와 내장, 뼈, 꼬리 등 남은 부속물들을 재료로 설령탕을 끓였다.

부암동과 제기동 집터



종로구 부암동사무소 오른쪽 무계정사길로 건다가 오른쪽 골목 입구의 전봇대 옆에는 작가가 살았던 집 터 표석이 남아있다. 부암동 고택은 대지 267평 한옥 70평으로 건축년도는 1930년대로 추정된다. 팔작지붕에 겹처마 한옥이다. 1937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던 곳으로 43살, 현진건의 삶에서 노년기라 할 수 있는 1930년대 이후 주로 이 곳에 살면서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1943년 제기동으로 이사간 이후, 60여 년 동안 8차례나 소유주가 바뀌면서 방치되다가 몇 차례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현진건 집터라는 표석이 설치되었다. 2015년 6월 무계정사 터와 현진건 집 터 두 건이 함께 법원경매에 붙여져 평창동의 한 재력가에게 넘겨진 상태이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개발은 무산되었고 공터에 풀만 자라고 있다.



〈2003년 부암동 집 철거 전과 후〉



〈고대 정문 앞에서 길을 건너 좁은 골목에 있던 현진건의 제기동 집 골목〉

현진건 문학상

소설가 현진건의 한국소설의 사실주의를 개척한 현진건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고자 2009년부터 매일신문과 현진건문학상 운영위원회 공동 주최로 제정했다. 매년 대구 시립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문학상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주소를 둔 등단 10년 이상의 기성작가만 참여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현진건소설문학독후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진건청소년문학상'은 대구 및 경북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해당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현진건문학상 대상 역대 수상자〉

회	수상년도	작가	작품
제 1회	2009	이수남	‘심포리’
제 2회	2010	송일호	‘퀴바디스 도미네’ 대구문학 2010년 7,8월호 게재
제 3회	2011	오을식	‘달밤’
제 4회	2012	문항렬	‘굴의 시간’
제 5회	2013	박 향	‘육포냄새’
제 6회	2014	이화경	‘모란’
제 7회	2015	유시연	‘존재의 그늘’
제 8회	2016	정경린 권정현	‘붓꽃’ ‘골목에 관한 어떤 오마주’
제 9회	2017	하창수	‘철길 위의 소설’
제 10회	2018	김가경	‘유린 이야기’
제 11회	2019	정미형 권이향	‘봄밤을 거슬러’ ‘모든 것은 레겐다에 있다’

▶ 기타 코스

청운문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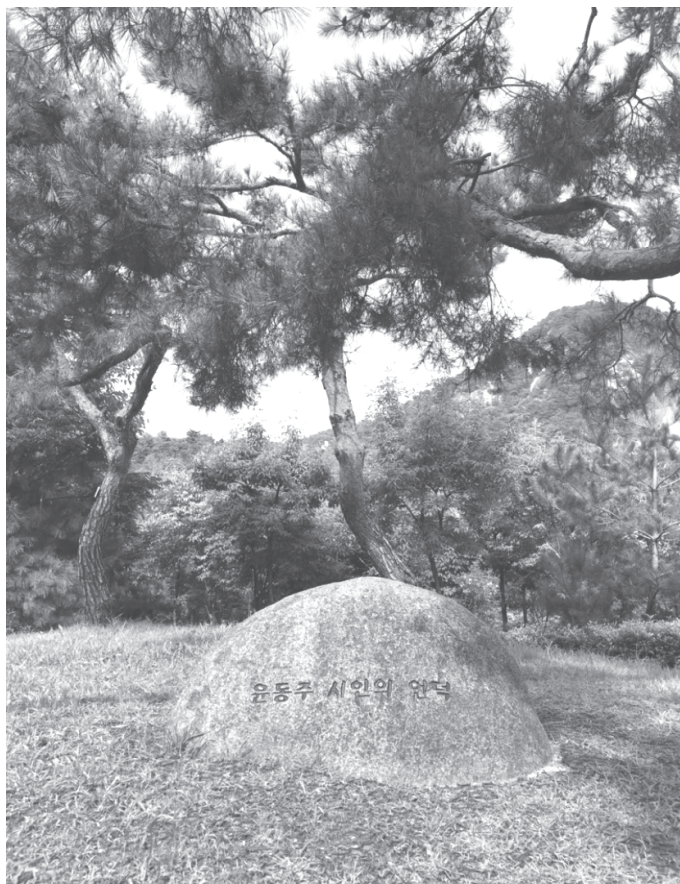


청운문학도서관은 한옥으로 지어진 종로구 16번째 도서관으로 독서와 사색, 휴식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이다. 시, 소설, 수필 위주의 다양한 문학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생활속 문화실현’을 내세우며 종로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

주민들에게 각종 독서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문학 작품 및 작가 중심의 기획전시와 인문학 강연, 시 창작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내부 열람실은 인왕산 자락의 정기가 한데 모여 고즈넉한 여유를 선사한다.

시인의 언덕



청운수도가압장 물탱크를 개조해 만든 운동주 문학관을 뒤로하고 언덕위를 오르면 청운공원이라 불리는 '시인의 언덕'이 나온다. 인왕산 줄기의 끝자리에 위치한 이곳은 일본유학을 떠나기 전, 그가 연희전문학교 학생이었을 때 이곳에서 멀지 않은 누상동에서 하숙을 했다. 눈 아래로 펼쳐지는 식민지 경성의 모습을 보면서 탄생한 <별 헤는 밤>과

〈서시〉는 그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를 한 영원한 저항시인이자 청년시인인 윤동주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무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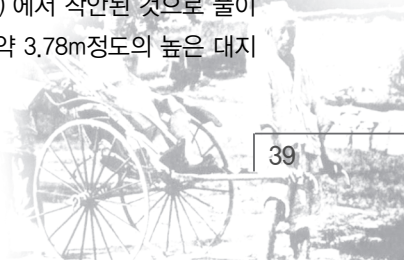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무계원은 도심속 전통문화공간이다. 과거 종로구 익선동에 있었던 서울시 등록음식점 1호 오진암의 건물의 기와, 서까래, 기둥, 대문 등을 가져와 지었다. 조선말기 서화가 이병직의 집이기도 하였던 오진암은 1910년대 초 대표적인 상업용 도시한옥으로서 그 희소성과 함께 보존가치가 있다. 고즈넉한 풍광속에서 한옥을 체험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도 진행한다. 2014년 개원한 이래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및 체험 등의 문화프로그램과 시설 별 한옥 대관 사업을 운영한다.

백사실 계곡(국가지정명승 제 36호)



백석동천은 1800년대 도성에 인접하여 조성되었던 별서 관련유적이다. 백악산(북악산) 뒷자락에 북한산을 정면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사골에 조성된 동천의 하나로 주변에 흰 돌이 많고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여 '백석동천'이라고 불린다. 또 '백석'이란 중국의 명산인 '백석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백석산'은 '백악산(북악산)'에서 착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백석동천은 남북을 중심으로 육각정자와 연못이 있고, 약 3.78m정도의 높은 대지



위에 사랑채 부분과 안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사랑채와 정자 등은 건물터에 기초만 남아 있고, 담장과 석축 일부가 남았다. 백석동천은 1830년대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유일하였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2년도 명승 경관자연 조사 연구사업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때 추사 김정희의 소유였음이 확인되었다. 1급수에 산다는 도롱뇽이 서식할 정도로 계곡물이 청정하며, 대표적인 자연생태 명소다. 2009년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참고문헌

- 〈씨뿌린 사람들〉(백기만, 사조사, 1959)
 〈현진건(玄鎭健)연구〉(김열규·신동욱 편, 새문사, 1981)
 〈현진건(玄鎭健)소설연구〉(현길언,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5)
 〈현진건의 소설과 그 시대 인식〉, 새문사, 1981.
 〈근대소설의 형성과 현대성 담론〉, 푸른사상, 2005.
 〈한국문학강의〉 길벗, 2015.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 연구 : 현진건 소설의 담화론적 연구를 위한 시론〉, 이성희, 서강
 어문학회 1994
 〈빙허 현진건의 생애와 비평〉(윤병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1986) p.101-119.
 〈현진건 단편소설 연구〉(장계숙,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p.130-146.
 〈현진건 작품론-그의 단편 중 아이러니기법을 중심으로〉(백은영, 영남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2) p.179-189.
 www.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이지현



대학에서 가정관리학을 전공하고 잡지사에 근무하면서 신문방송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8년 동안 여성지 기자로 활동하다 두 자녀 육아에 전념,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4년부터 책마루독서교육연구회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익힌 노하우로 <EQ창의마음 독서>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분당 내 여러 초등학교에서 그림책독서수업을 꾸준히 했다. 경기도 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에 참여해 독서지도 및 진로수업을 진행했다. 수원시립창룡도서관과 광고홍재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글쓰기 수업'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했다.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소속 도시문화지도사로 '서울미래유산' 해설 활동을 하고 있다.

해설자 : 김윤정



국내외에서 그림과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 디자인관련 일을 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직업의 전환을 갖게 되었고 해외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강사 일을 하게 되었다.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유치원, 학교, 학원, 문화센터, 도서관, 기업체 등에서 영어를 강의했다.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책읽어주기 재능기부를 시작하다가 구연, 독서지도, 토론, 독서심리, 미술심리, 학습법 등의 자격증공부를 하면서 독서관련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성남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인성, 진로, 책을 통한 성품지도와 같은 특강을 진행했고 성남 도립도서관의 독서 서포트단으로서 성남 소재 초등학교에서 독서 지도를 했다. 성남시 드림스타트 아동성장 북 멘토링을 진행했고 현재 성남시 소재 아동 센터에서 독서와 관련한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다.

책마루 독서교육연구회와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 공연자 소개

김명남 명창



약력

- 2010년 광주 임방울대회 대통령상수상
- 국립창극단 단원
- 중요무형 문화재 제5호 흥보가 이수자
- (사)한국 판소리 보존회 성북지부 지부장
- (현) 김명남 판소리연구소 소리꽃 대표

조풍류 교수



약력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한국화가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고법예능보유자 정화영선생 사사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ulture)에서 선착순 마감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2019 서울 문학 여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